

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회」 제2차 회의 모두발언(4.27.)

[인사말씀]

- 지금부터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회」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중기중앙회장님, 복지부·중기부 차관님, 식약처장님, 경제단체장님 및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[최근 경제상황과 기업혁신의 중요성]

-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
 - 1/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대비 1.7%를 기록하며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
 - 지금은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,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“우리 경제의 파이”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.
 - 이에 지난주 삼성·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만나 글로벌 초혁신 기업으로의 도약과 제2·제3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당부드렸습니다.

[대중소 상생의 중요성]

- “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
 -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, 중소기업·스타트업이 뒷받침하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.
 - 특히, AI 등 산업패러다임 전환시기에는 “모두의 성장”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합니다.

[정부의 소통 및 지원노력]

- 「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회」는 정부, 기업, 경제단체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.
 - 1차 회의(3.12일)시 제안된 창업제도 개선요청을 반영, 교수·학생의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「국가 창업시대 스타트업 “열풍” 조성방안」(4.24)에 담았습니다.
 - * (과기원 창업승인절차 간소화) 10단계, 최장 6개월 → 7단계, 약 2주 (휴직·휴학 제한) 창업 휴직(現 3년) 최대 7년으로 연장, 창업휴학(現 4년) 폐지
-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·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금융·세제·규제 개혁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.

[금일 회의 주제: 바이오·뷰티 등]

- “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”는 말이 있습니다.
 - 바이오와 뷰티산업은 특히 기존 제품과 브랜드에 안주하는 순간 시장에서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.
 - 기술·트렌드·소비자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연구 개발 투자와 품질 안전성을 끊임없이 고도화해야 합니다.
- 정부는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·뷰티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, R&D 지원, 규제 합리화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.
 - * 총 1.6조원의 바이오 R&D 지원, 1,500억원의 임상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
 - 이번 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주시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